



대찬인생 응원해요

대창도 쟁의권 확보

11일, 지부의 새식구 대창지회도 쟁의권을 확보했다. 4월 설립 후 2달 넘게 회사는 '기존노조랑 맺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았다'며 버텼다. 4명짜리 알박기 노조에다 단협내용도 공개 못하는 노조로 260명 넘는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 했다. 지노위, 중노위 모두 '금속노조와 교섭하라' 했다. 회사는 7차에 이르기까지 교섭을 피하다가 6월 말 조정절차에 돌입하자 '임금만 교섭하자'며 쟁의권 확보를 지연시키려는 작전을 폈다. 하지만 누구도 권리를 향한 대찬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조정은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6.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일(13일) 지부파업으로 함께

대창지회는 출근/게릴라 선전전, 지역연대, 수련회 등 열심히 조합원의 '단결'을 다져왔다. 6월 30일 대창 앞 지부결의대회에는 800명이 모였다. 퇴근 후 집회로는 역대 최다인원이다. 최저임금-주말없는 맞교대-끝없는 산재사고, 이제는 바꿔보자 나선 새식구들의 용기. 대찬인생 응원하며 퇴근하고 달려온 정든 식구들의 마음. 그 마음 담아 경기지부는 13일 4시간 파업 후 다시 시화로 간다. 날씨가 덥지만 '인지 이후 7년 만에 온 시화공단 새식구를 지키자'며 시화공단을 행진해서 대창 앞에 모일 예정이다.

내일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대찬 인생을 위하여!

멍멍꿀꿀 신분제?

교육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교육부장관이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화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쩌다 진심을 내뱉은 바람에 잠시 털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겉으로 인재 경영이니 소통신뢰니 위선을 떨며, 속으로 신분제를 원하는 이들이 널렸다.

헬조선 핵심세력 재벌

재벌은 층층이 비정규직을 만들고, 하청업체 뒤박주며 노조를 깬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노동자'에게서 자기몫만 털어간다. 복수노조법, 타임오프 등 노동권을 말살하는데 막대한 로비를 한다. 이팍팍한 인생, 을들끼리 갑질하고 경쟁하다 이젠 혐오가 판친다. 문제는 재벌의 경제권력이다.

벌주자

권리를 아는 우리는 '탈출' 말고 '고쳐!'를 외친다. 어차피 안 된다며 '탈출 헬조선'해도, 지옥은 그 자리에 그대로니까. 우리는 이대로는 곤란하다며 "재들 벌 좀 줘! 고쳐 헬조선!"을 외친다. 경제권력 세습으로 영원한 귀족이 되길 꿈꾸는 저들의 오만한 욕망을 벌주기 위해 우린 단결하고 나선다.

7월 22일 금속노조 파업!

가자 서울로! 재들 벌좀주자!

불 붙는 경기지부



입이 짹! 패기보소

7월 4일 말레동현화성지회가 2016 임단협 투쟁 출정식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곁으론 대화로 잘 해보자 해놓고 뒤로 조합원 만나는 사측. 논의할만한 제시안도 없다. 조합원들은 “ 좋게 좋게 하자더니 좋은 말로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 보여줍시다!”를 외쳤다. 찌렁찌렁한 신생노조의 패기에 출정식에 함께한 지부 운영위원장들도 입이 짹! 벌어지게 감탄했다. 노란 소지천을 다 같이 작성하는 걸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련하고 든든하게

8일 에스제이엠지회도 2시간 파업을 하고 민주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지회는 이미 6월 넷째 주부터 조별 전체조회를 하고, 현장에서 공동체 놀이, 조별 단합대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있다. 새식구 대창지회 출근선전전과 단합대회 등 일정에도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노련하고 든든한 투쟁으로 2016년에도 협력불패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대화에 나와라!

계양전기지회는 8일 주간조 7시간, 야간조 전면파업을 하고 천안공장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신임 대표이사는 “노사관계에 얽매이기 싫다.”며 위임장 내놓고 교섭불참을 선언해 노사관계가 첫만남부터 파행이다. 삼성출신 새 대표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지회는 단단히 맘 먹었다. “대화에 나와라! 아니면 나가라!”며 등벽보를 만들어 붙이고, 회사 식당에서 치킨 & 바비큐 단합대회를 열며 열 받는 와중에도 신나는 투쟁을 시작했다.

쌩쌩한 첫 출정식

11일 코리아에프티지회의 파업출정식이 열렸다. 작년 노조를 만들고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다. 4일 쟁의권 확보 후에 부서별 파업을 통해 조직력을 다진 뒤 11일 다 같이 파업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다. 빠레트와 부품박스로 만든 무대에서 지회 쌩쌩몸짓패가 멋지게 공연했다. 지회장을 비롯 3인이 식발투혼을 발휘했다.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도 있었다. “행동하는 노동자가 승리하는 노동자다” 힘찬 구호로 첫 출정식을 마쳤다.

